

그리스도교에 대해 고려의 협조 구해

세계종교평화협의회, 1333년 교황이 보낸 서신 원역

(사)세계종교평화협의회는 1333년 교황이 고려의 왕에게 보낸 서신에 대한 정서·번역작업을 마치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6월 협의회가 해외 교류 일정으로 바티칸기록원(바티칸비밀문서고)을 방문했을 때 종교적 화합과 상생의 차원에서 화약 받은 2쪽 분량의 라틴어 서신으로, 여기에는 1333년 아비뇽에 머무르던 교황 요한 22세가 교구장(대주교)을 원나라에 파견하면서 그리스도교에 대한 고려의 협조를 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고려인들의 국왕께"라고 시작하는 서신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옛 그리스인들과 새 그리스인들을 인간비가 넘치는 친절로 받아주시고 온정이 넘치는 은혜로 그들을 보살펴 준 일은 그대 이름에 좋은 평판과 영예를 더해주소로 귀하는 이런 일에 관하여 그대 마음의 눈을 들어 존엄하신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면서 귀하가 지금까지 훌륭하게 이루셨던

일을 장래에도 기꺼이 계속 행하십시오'(중략) '대주교(니콜라오)로서의 그와 언급된 수도원제들이 귀하와 그대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계명을 가르쳐 복음을 전해야 할 많은 일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중략) '귀하께서 평화로운 얼굴로 그들을 받아주시도록 우리 주 하느님 안에서 귀하의 관대하심을 조심스럽게 요청하고 권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 서신은 기황후가 원나라(몽고)에서의 황후등극 이후 고려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교황청에서 우리나라에 보낸 최초의 서신으로 기록될 것이다."라며 "비록 서신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 나머지 고려와 바티칸 사이의 교류의 개연성이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협의회는 호남교회사연구소와 공동으로 번역원료에 따른 서신에 대한 문서·역사적 고증작업과 함께 추가 서신에 대한 후속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해은 기자



서신에는 '귀하께서 평화로운 얼굴로 그들을 받아주시도록 우리 주 하느님 안에서 귀하의 관대하심을 조심스럽게 요청하고 권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도·중국산동성·강소성 한중서에 교류전 개최 오는 13일까지 전주시민갤러리

2016 전북 중국산동성·강소성 한중서에 교류전이 오는 13일까지 전주시민갤러리에서 열린다.

한중문화협회전북지부가 주최하고 한중서에 교류전 집행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의 2016년 한중서에 교류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것으로 서예교류를 통해 양국의 문화적 동질성을 알아보는 물론 상호 이해와 우호증진 및 전북서예문화의 우수성을 중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함에 의의가 있다.

한중문화의 아이콘 최치원을 만나려 한 테마로 한 교류전에는 현대 조수현, 이강 송현숙, 양성 김승방, 백하 김원영, 서예가 등 도내 유명작가들이 작품을 출품했다. 전시 이외에도 최치원 유적지 탐방, 한글서예체험 등의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북의 멋과 맛과 소리를 중국방문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인 만큼 그 의미가 더욱 더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고부문화권 체험학습', 글짓기와 그리기 현상 공모전 우수 작품 선정

고부문화권보존사업회(회장 김호근 이하 고부문화보존회)에서 주관한 '정음시 조, 중학생 사생대회 및 백일장 우수작'이 선정됐다.

고부문화보존회는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23일까지 공모 기간 37점과 글짓기 28점 등 총 65점이 접수됐고,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5일 엄정한 심사를 벌여 모두 33점을 우수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기에서는 이수원(고부초 6)·박경은(정음여중 3)이 금상을, 태예민(수성초)·박영민(고부초)·최은성(배영중)·송은연(배영중)이 은상을 차지했다.

또 글짓기에서는 김민정(고부중 3)이 금상을 차지했고, 유동원(배영중)·정다훈(배영중)학생의 작품이 은상으로 선정됐다.

고부문화보존회 관계자는 "공모기간 고부향토와 동화혁명모의탑, 군자정 등 다양한 주제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예술성과 창의성, 상징성을 기준으로 학생들의 예술성과 상징성이 돋보이는 33점의 작품을 우수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모전은 제10회 두충산 청정매일 축제 및 축제 풍년기원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고부문화권의 역사현장을 사전에 탐방하고 체험기록하고 글과 그림으로 표현토록 함으로써 동화농민혁명의 발원지인 고부와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널리 알린다는 취지다. /정음·김다환 기자



전북발레시어터, 녹두장군 전봉준 공연

내일 정음사 예술회관에서

전북발레시어터는 '동화농민혁명 다시 피는 녹두꽃 그 역사의 희망' 녹두장군 전봉준을 오는 11일 오전 11시 정음사 예술회관 무대에서 공연한다.

이 작품은 정음의 대표인 전봉준의 일대기를 발레와 영상을 접목시켜 극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연출했다.

공연은 전라북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정음시가 주최하고 정음예술회관·전북발레시어터가 주관한다.

전북발레시어터 영광옥 단장은 "녹두장

군은 무용공연으로 유치원생 시절부터 서양의 동화나 신화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우리나라 위인과 역사를 소개하고 싶었다.

그중 동화농민혁명의 내용을 무용공연으로 만들어 우리민족의 전통적 가치관과 논리의 중요성을 동시에 이해시키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용공연을 통한 예술적 경험과 정서순화 및 감성의 윤곽으로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는데 일조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전석무료초대이며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하다.

공연문의는 010-3563-1775 이다. /정해은 기자

문체부, '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 폰트 제작 공모전 개최

최근 컴퓨터 글씨체를 두고 저작권 논란이 제기되는 점 등을 감안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료 폰트 프로그램을 만든다.

문체부는 폰트 프로그램 제작을 목적으로 손글씨 폰트 도안에 대한 '국민저작권 보물창기 제작 공모'를 오는 31일까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학교 수업이나 업무, 디자인 등에서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폰트 프로그램은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쉽게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폰트 제작업체가 유료 폰트를 불법 사용했다는 이유로 초등학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는 등 무료 폰트 프로그램은 영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개인적 이용에 국한된 경우가 많아 학교나 기업이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캘리그래피 등 손글씨를 공모한 뒤 우수한 도안을 폰트 프로그램으로 제작해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려면 세종대왕이 쓴 '훈민정음 서문'을 A4 용지에 써서 JPG 파일이나 PDF 파일로 만들어 국민저작권 보물창기 누리집(www.findfont.kr)에 제출하면 된다. 폰트 및 캘리그래피 전문가 평가를 통해 우수작으로 선정된 손글씨는 폰트 프로그램으로 제작해 내년 상반기 중에 배포될 예정이다. /뉴시스

담성놀이와 강강술래 눈길 끄는 고창모양성제 성황리 종료

고창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축제 제43회 고창모양성제의 가장 큰 볼거리 중 하나인 강강술래와 담성놀이가 화려하게 펼쳐졌다.

'고창모양성제'는 다채로운 전통문화체험과 풍성한 먹거리로 군민과 관광객들의 큰 호응 속에 연일 대성황을 이뤘다.

지난 7일 고창읍성 일원에서는 '축성 563주년' 담성놀이와 강강술래 재현과 체험행사가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생활개선고창군연합회(회장 서종자)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14개 읍면 주민과 관광객 등 1000여명이 함께 한복을 차려입고 참여해 성곽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담성놀이 후에는 강강술래가 이어져 국악예술단 '고창(高昌)'의 선창에 따라 강강술래 노래를 부르며 서로 손을 맞잡고 여섯 개의 원을 그리며 돌면서 하나된 모습을 연출해 장관을 이뤘다.

이날 국내 유일의 담성놀이를 촬영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 온 사진작가들도 가을 정취를 배경으로 한복과 민복을 차려입은 담성놀이 행렬과 강강술래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고창 모양성제'는 군민과 관광객들의 대표 체험행사인 강강술래의 볼거리와 참여기회를 늘려 7일 강강술래 재현 행사와 함께 5개 지역농협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강강술래 경연대회'를 열었으며 8일 오후에는 야간 강강술래를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한편 '제43회 고창 모양성제'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고창읍성 일원에서 '역사의 미래다'를 주제로 펼쳐져 원님부임행사, 조선시대 병영문화체험, 전통혼례, 택견 시연회 등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행사로 호응을 얻었다. /고창=김경식 기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양성평등 UCC 공모전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우리사회의 남녀차별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개개인의 능력 및 소질을 발휘하는 건강한 사회가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 주제는 일상생활 속의 양성평등 실천사례, 남성과 여성의 다른 경험과 특성, 사회경제적 격차 등을 반영한 정책, 주변 시설물 개선 필요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야기되는 것들을 소재로 하면 된다.

공모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오는 18일까지.

출품작은 최신 디지털 기기로 촬영한 5분 이내의 동영상(AVI/WMV)을 제작해 우편, 방문, 이메일로 제출 가능하고, 응모신청서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수상작은 24일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당선작에 대한 수상은 학생부 일반부포 구분하여 대상 1팀을 비롯하여 최우수상 2팀, 우수상 2팀 등 총 5개 팀에게 상장 및 상금이 수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jbwc.re.kr 참조. 문의 063)254-3813. /정해은 기자

<p>▷쥐띠</p> <p>46년생: 일의 능률과 상황이 맞아 떨어져 좋은 결실이 있는 운.</p> <p>60년생: 다른 사람과 뜻이 통하니 순조로운 운이다.</p> <p>72년생: 구설수가 따르는 운이니 말을 조심하라.</p> <p>84년생: 금전적으로 손해볼 수 있는 운이니 먼저 배틀라.</p>	<p>▷소띠</p> <p>49년생: 건강에 주의가 필요한 운이니 섭생에 주의.</p> <p>61년생: 다른 사람과도 생각이 맞지 않으니 스트레스가 심한 운.</p> <p>73년생: 어려움이 있어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p> <p>85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막힘이 따르니 내실을 다지라.</p>	<p>▷호랑이띠</p> <p>50년생: 서로 겹으로는 웃으나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먹고 있다.</p> <p>6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시비수가 생기니 내시지 마라.</p> <p>74년생: 상황이 어려워도 다른 사람의 일에 흔들리지 마라.</p> <p>86년생: 어려움이 따른다면 뒷사람의 조건을 구하라.</p>	<p>▷토끼띠</p> <p>51년생: 정신적으로 힘든 운이므로 스트레스에 주의해야 하는 운.</p> <p>63년생: 주변 사람에게 베풀어야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p> <p>75년생: 경쟁자로 인해 고민할 일이 생기는 운이다.</p> <p>87년생: 타인의 일에 나서지 마라. 좋은 일보다 험악한 격.</p>
<p>▷용띠</p> <p>5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자가 나타나지.</p> <p>64년생: 강하게 나가면 부러지니 적당한 타협만이 살길이다.</p> <p>76년생: 문서를 주고받거나 계약을 성사시키기에 좋은 운이다.</p> <p>88년생: 용기만으로 행동하기에는 제약이 많이 따르니.</p>	<p>▷뱀띠</p> <p>53년생: 중요한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이 좋은 결실.</p> <p>65년생: 뜻이 맞는 사람을 만나 화합할 수 있는 좋은 운.</p> <p>77년생: 고민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함께 상의하라.</p> <p>89년생: 소화가 계통의 질병에 유의해야 하는 운.</p>	<p>▷말띠</p> <p>54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따르는 운이니 투지나 투기는 삼가라.</p> <p>66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매사 일찍 움직여야 얻을 수 있다.</p> <p>78년생: 지나친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능력 발휘되는 좋은 운.</p> <p>90년생: 정신적으로 맑지 않으니 판단 오류가 생길 수 있는 운.</p>	<p>▷양띠</p> <p>55년생: 지나친 자기주장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의 불화가 예상된다.</p> <p>67년생: 뒷사람으로 인해 고민할 일이 생긴다. 성급하게 결정말라.</p> <p>79년생: 권다(3)이 좋지 못하고 매사 주의가 필요한 운.</p> <p>91년생: 정신적으로 힘든 운. 다른 사람과의 화합에도 좋지 못하다.</p>
<p>▷원숭이띠</p> <p>55년생: 외부적인 일들이 생각 외로 잘 해결될 수 있는 운이다.</p> <p>69년생: 동기진과 함께 움직이면 이득을 볼 수 있겠다.</p> <p>80년생: 정신적으로 힘든 운이니 해답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법.</p> <p>92년생: 구설수와 시비가 따르는 운이다.</p>	<p>▷닭띠</p> <p>57년생: 식욕이 따르는 운이니 외출하면 좋은 일이 생기겠다.</p> <p>69년생: 건강에 주의가 필요한 운이니 컨디션 조절에 신경써라.</p> <p>81년생: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p> <p>93년생: 인력으로 안 되는 것도 있는 법이다.</p>	<p>▷개띠</p> <p>48년생: 문서를 얻을 수 있는 운이니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 운.</p> <p>59년생: 처음에는 좋은 운이 후반에는 들어진다.</p> <p>70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실수가 따르는 운이다.</p> <p>82년생: 자신 있는 일이라도 할지라도 어려움이 따르는 운.</p>	<p>▷돼지띠</p> <p>47년생: 나서지 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돕거나 참견하는 것도 주의.</p> <p>59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막힘이 따르는 운이다.</p> <p>71년생: 상황이 좋지 못할 때에는 뒤로 물러서서 때를 기다려라.</p> <p>83년생: 배운 만큼 돌아오니 적극적으로 보초하는 것이 좋은 운.</p>